

CAPD 환자에서 비강 내 *S. aureus*의 보균과 CAPD 관련 감염증에 대한 연구

서울대학교병원 신장내과, 서울시립보라매병원 신장내과*,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신장내과[†]

김치원 · 임춘수* · 오국환 · 진호준[†] · 나기영[†] · 채동완[†] · 김연수 · 안규리 · 이정상 · 오윤규*

배 경 : *S. aureus*는 CAPD 관련 감염증의 가장 중요한 원인균 가운데 하나로 특히 *S. aureus*의 비강 내 보균은 이로 인한 CAPD 관련 감염증의 발생과 유의한 상관관계를 갖고 있음이 알려져 있다. 연구자들은 비강 내 *S. aureus*의 보균과 CAPD 관련 감염증의 발생과의 상관관계를 평가하였다.

방 법 : 서울대학교병원, 보라매병원, 분당서울대학교병원에서 외래 추적 관찰 중인 CAPD 환자 165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(추적기간 평균±표준편차: 28.9±30.3개월). 환자들은 2005년 9월과 2006년 2월 사이에 한 차례 비강 Swab을 실시하여 동정 결과를 확인하였다. 환자의 병력을 비롯한 임상 정보를 의무기록을 통해 후향적으로 조사하였다.

결 과 : 비강 Swab에서, *S. aureus*는 38명 (23%), *S. epidermidis*를 포함한 Coagulase Negative Staphylococcus (CNS) 23명 (17%), Streptococcus 5명 (3%), 그람음성균은 12명 (7%)에서 나왔다. CAPD 복막염은 53명에서 89회 발생하였고 *S. aureus*가 5회 (6%), *S. epidermidis*를 포함한 CNS가 21회 (24%), Streptococcus 11회 (12%), 그람음성균이 17회 (19%) 동정되었다. 1년 이상 추적 관찰을 받은 환자에서는, *S. aureus*의 비강내 보균군과 비보균군 사이에 *S. aureus*에 의한 복막염 및 출구감염의 발생 유무 (for Peritonitis p=0.18, for Exit site infection p=0.69)와 발생 회수 (for Peritonitis p=0.29, for Exit site infection p=0.15) 및 발생률 (for Peritonitis p=0.32, for Exit site infection p=0.30)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. 당뇨 환자만을 대상으로 조사하였을 때에도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.

결 론 : CAPD 환자에서 *S. aureus*의 비강내 보균율은 23%였고, *S. aureus*의 비강내 보균은 이로 인한 복막염 및 출구감염의 위험을 증가시키지 않았다.